

# 화학제품, 상반기에 71억달러 흑자

지경부,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상승으로 ... 전자부품 수출도 호조

부품 및 소재 수출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1095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상반기의 부품·소재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7.9% 증가해 1095억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72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7월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는 371억달러로, 수출액과 함께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전자부품이 220억5000만달러, 자동차 엔진 등 수송기계부품이 62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재분야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상승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7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은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나 각각 17억7000만달러와 13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무역수지가 전자부품과 수송기계 부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225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다.

반면, 일본 무역수지는 열연강판과 LCD(Liquid Crystal Display) 유리원판 등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1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중국시장의 경쟁 심화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산업 경기 둔화 요인 등으로 상반기 대비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2>